



“화엄학은 없다. 법성교학이 있을 뿐”

신규탁 연세대 교수, 학계 화엄경 연구분류에 문제제기... ‘화엄의 사상과 실천’ 학술대회서

일본 학계 분류 근현대 수입

화엄연구가·조사 기준 함께 지적

“현대 화엄학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근대적 불교연구가 수입되며 사용됐다. 학이 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연구범위나 분야, 또는 고유연구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화엄학이라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학회가 11월 13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화엄의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서 “화엄조사, 또는 화엄경 연구를 기준으로 화엄학을 규명하는 학계 움직임을 보류하고 철학적 주의 주장을 기반으로 ‘법성교학’으로 불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소위, 화엄학을 어떻게 규정할까” 글에서 “일본 학계가 유럽 학문을 수

용하며 신조어가 쓰였고, 철학, 물리학, 수학 등의 ‘학’ 용어가 생겨났다. 특히 불교계는 근대적 법령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립되며 대학을 운영했는데 종학의 일환으로 천태학 전공, 밀교학 전공, 선학 전공 등 신조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도 화엄교학과 화엄사상 등 구분 시도가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화엄사상 연구분야에 있어 현재 한국은 ‘화엄사상’ ‘화엄교학’ ‘화엄학’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대만의 화엄종, 중국의 화엄학 용어 사용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또 서구에서는 ‘화엄철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신 교수는 “화엄경을 연구한 것으로 화엄학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엄경을 연구한 천태지도의 ‘화엄가’인가? 또

선사들도 화엄경을 말하곤 하는데 이 또한 화엄가인가?”라며 “화엄가에 의해 구성된 현재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철학적 주의 주장이 같은 학문공동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수와 청량은 <법계관문>을, 규봉과 송대의 장수자선 등은 <대승기신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모두가 <법계관문>에 대한 주석서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철학적 주의주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화엄사상과 그 실천적 모색 △동아시아불교와 화엄사상 △한국화엄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화엄사상과 인도·티베트 △화엄사상과 관련한 자유주제 △불교와 관련한 일반주제로 나눠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는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과 김용표, 고영섭 동국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교수 등이 나섰다.

대한불교진흥원, 제7회 원효학술상 공모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제7회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가운데 한 연구부문을 선정해 진행한다. 시상 부문 및 상금은 교수의 경우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이며, 박사 후 과정은 비전임 교수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이다. 석·박사과정 학생은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이다.

학생 논문은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심사대상 논문은 최근 5년 이내(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31일까지)에 발표된 것으로 제한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로 선정자는 4월 중 개별통보된다. 시상식은 2016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열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를 오는 불교진흥원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미술사연구소, 신흥사 역사·문화 조명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2회 학술대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1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설악산 신흥사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32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의 사회 하에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벽각각성의 조형활동과 신흥사 불상의 조성’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신흥사 경관의 조성배경과 사상’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흥사 극락보전 건축사적 의의’ △유경희 국립중앙

박물관 학예사의 ‘신흥사 극락보전 영산회상도’ △김형정 동국대 교수의 ‘신흥사 경관의 조성배경과 사상’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흥사 극락보전 건축사적 의의’ △유경희 국립중앙

박물관 학예사의 ‘신흥사 극락보전 영산회상도’ △김형정 동국대 교수의 ‘신흥사 경관의 조성배경과 사상’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신흥사 극락보전 건축사적 의의’ △유경희 국립중앙

노덕현 기자

조선시대 송광사의 위상 살핀다

보조사상연구, 11월 21일 제25차 국내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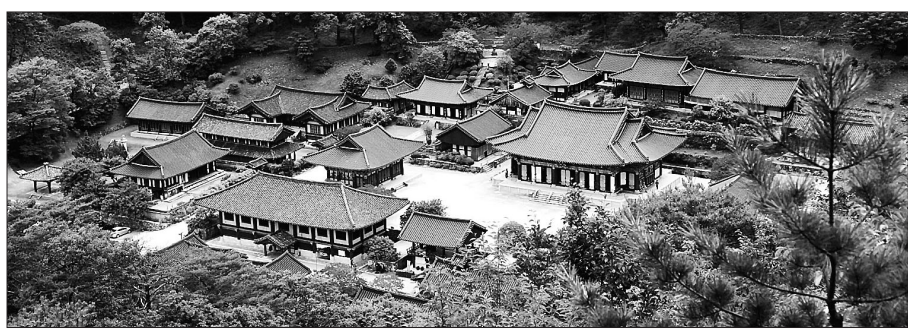
조선시대 송광사의 위상과 불교계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21일 오후 1시 서울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을 주제로 제25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해당 서울과 학기술대 박사의 ‘15세기 불교계의 동향과 기화에 의한 지능 사상의 계승’ △손승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의 ‘조선중기 송광사의 불사간행과 불교계 동향’ △이종수

순천대 HK교수의 ‘18세기 불교계 동향과 송광사의 위상’ △탁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의 ‘19세기 불교계와 송광사’는 근대화 과정에서 극심해진 승역 부과 등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한 불교계의 움직임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탁 연구원은 “결사와 염불회를 결성해



순천 송광사 전경. 보조사상연구원은 21일 송광사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 진흥을 도모했으며, 사찰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송광사는 고종 대에 삼전의 축원당으로 지정된 데 이어 기로소원당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는 송광사의 고승 용수 스님의 공로였다”고 주목했다.

탁 연구원은 당시 송광사 스님들이 중앙

관료 및 사대부들과도 폭넓게 교류를 맺었던 것도 왕실원당의 유치가 가능한 요인으로 꼽았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고려시대 지능 스님에 의해 전승된 선종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 14 ‘자비와 깨달음’ 학술연찬회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려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밝은사람들 연구소(소장 박찬욱)는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과 함께 11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명장에서 제14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자비, 깨달음 씨앗인가 열매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연찬회에서는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 인도 대승불교 및 티베트불교, 중국 대승불교 및 선불교, 서양철학 및 신학, 심리학 방면에서 각각 자비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연찬회에서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초기불교 및 부파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붓다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비를 가르쳤으며 상좌부의 보편적 수행법으로서의 자비수행과 선정수행으로의 자비수행, 설일체유부의 사무량심과 오정심관 등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차상엽 금강대 HK교수는 인도 대승불교 및 티베트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대승불교의 ‘대비(大悲)’는 사무량심의 비(悲)보다 확장되고 깊어진 서원과 실천을 담고 있다. 대승에서의 자비는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세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하며 티베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리심 계발 방법도 소개한다.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중국 대승불교 및 선불교에서의 자비에 대해 “대지

도론’ ‘화엄경’ 등 대승경문을 통해 본 지혜와 자비의 관계는 중생과 진리가 둘이 아님을 말하며 이는 곧 실천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연찬회에 앞서 “깨달음으로서의 지혜와 실천으로서의 자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밝은사람들연구소는 이번 발표문을 모은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윤주사)를 출간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 공간 미학’ 11월 28일 학술대회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차차석)와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28일 오후 1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례 공간의 미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봉건 서울대 강사의 ‘불교의례와 건축’ △최건업 한국

불교사연구소 연구원의 ‘선원건축의 공간미학-해인사 상선원(上禪院)을 중심으로’ △김태연 대구대 교수의 ‘수륙재 지화장엄의 조형미 연구’ △윤소희 부산대 강사의 ‘일상의례의 율조와 한글화’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불화와 의례 공간’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동악미술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동악미술사학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67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황선우 동국대 박사의 ‘산서성 평순현 대운원(大雲院)의 오대 유마경변상도 고찰’ △장희정 금강문화관 학예사의 ‘백양사 청류암 칠성

탱의 작가와 연대 추정’ △정우택 동국대 교수의 ‘조선전기 신도상(新圖像) 선묘관 음보살도’ △홍선표 이화여대 교수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정점과 관점’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정기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